

中企 10곳 중 6곳 “원가 상승분 납품단가에 반영못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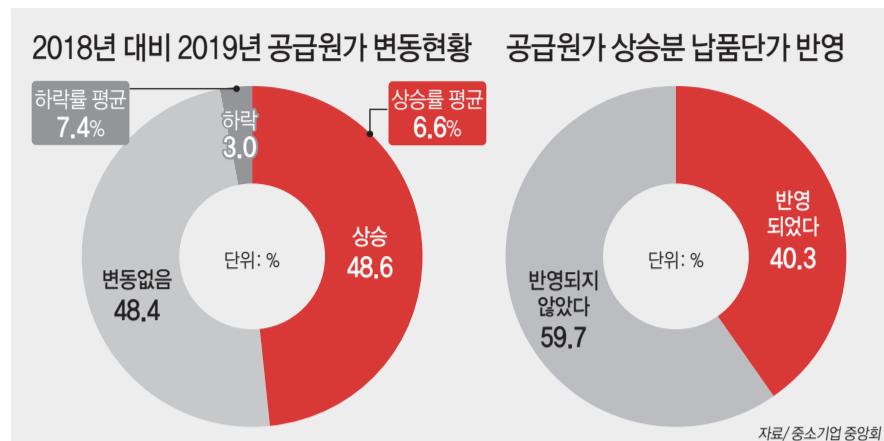
미완의 과제 납품단가 조사

상승분 납품단가 반영, 40% 불과
7곳 중 1곳 ‘단가 부당인하’ 경험

노무비 인상 53%, 재료비 36%
반영안된 이유 34% ‘경기불황’

대기업 등으로부터 일감을 받는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은 재료비, 인건비 등 공급원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납품단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7곳 중 1곳은 납품단가 ‘부당인하’를 경험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반 이상은 별다른 대책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제조업체 5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해 11일 내놓은 ‘2020년 중소제조업 납품단가 반영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대비 2019년 현재 ‘원가가 올랐다’는 답변은



48.6%, ‘변동 없다’는 답변은 48.4%로 각각 집계됐다. 평균 원가 상승률은 6.6%였다.

응답기업 가운데 납품단가가 ‘내렸다’고 답한 기업은 3%에 그쳤고 평균 하락률은 7.4%였다.

그런데 원가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제대로 ‘반영됐다’는 답은 40.3%로 절반을 넘지 못했다. 나머지 59.7%는 ‘반영되지 않았다’

고답했다.

원가 중에선 최저임금 인상 등의 영향을 받아 노무비가 올랐다는 답변이 53.4%로 가장 많았다. 노무비 평균 상승률은 5.4%였다. 재료비가 올랐다는 답변은 36%였다. 재료비는 평균 5.3% 올랐다.

노무비, 재료비, 경비 등의 원가가 대체로 오른 가운데 1년전에 비해 납품단가가 ‘변동없다’는 답변이 72%로 가장

많았다. ‘인상’은 17.4%, ‘하락’은 10.6%였다.

‘공급원가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답한 145개 기업을 대상으로 원인을 물은 결과는 ‘경기불황에 따른 부담 전가’가 33.8%로 가장 많았다. ‘관행적인 단가 동결·인하’도 31.7%에 달했다.

특히 응답기업의 15%는 부당하게 납품단가 인하를 경험한 것으로 파악됐다. 화학, 전기·전자 업종의 부당 인하 경험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자동차는 ‘제로(0)’였다.

납품단가가 위탁기업에 의해 일방적으로 깎였지만 60%는 ‘별다른 대책 없이 수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는 ‘인력 감축’(26.7%)이나 ‘저가 원재료로 교체’(12.0%) 등을 통해 대응하고 있는 모습이다. 아예 납품을 거부한다는 응답(9.3%)도 있었다.

‘부당납품단가인하방법’은 ‘경쟁업체와의 가격경쟁 유도를 통한 단가 인

하’가 절반이 넘는 50.7%로 가장 많았다. ‘지속적 유찰을 통한 최저가 낙찰’(16%)도 일부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이처럼 일감을 주는 위탁기업과 일감을 받는 수탁기업간 납품단가 문제가 여전한 가운데 기업들은 필요한 조치로 ‘원자재 변동분 단가에 의무적 반영’(64.4%)이 가장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주기적인 납품단가 반영 실태 조사’(16.2%), ‘부당한 납품단가 감액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8.4%), ‘우수 원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7.8%) 등도 요구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최근 코로나19와 보호무역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수탁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관행적 또는 일방적인 단가 동결·인하 문제와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개선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산업폐기물 다시쓰고, 생활쓰레기는 연료 활용

폐기물 처리 ‘모범’… 삼표의 친환경 경영

화력발전부산물 시멘트 대체재 생산
생활폐기물 연간 2만톤 연료 활용

삼표그룹이 친환경 경영에 더욱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산업 부산물을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을 건설기초소재로 활용, 자원재활용과 환경개선에 앞장서면서다.

11일 삼표그룹에 따르면 그룹 계열사로 충남 보령·당진과 전남 여수 3곳에서 플라이애시(Fly Ash)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에스피네이처는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활용해 콘크리트 제조 과정에서 시멘트를 대체하는 혼합재를 생산하고 있다.

또, 충남 당진과 천안에 있는 공장에 선 철철소에서 발생하는 슬래그(Slag)를 가공해 건설기초소재인 고로슬래그 시멘트를 만들고 있다.

삼표시멘트는 생활쓰레기를 시멘트 생산 연료로 활용하고 있다. 지난해 강원도 삼척시와 함께 ‘가연성 생활폐기물 연료화 전처리시설’을 건립한 삼표시멘트는 선별된 폐비닐 등 가연성 생



삼표그룹 계열인 에스피네이처 당진슬래그공장 전경.

활폐기물을 시멘트 생산 연료인 유연탄 대체제로 사용하고 있다.

이 시설은 하루 70t의 생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고, 현재 연간 약 2만t의 생활 폐기물을 연료로 활용해 시멘트를 생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삼표그룹은 건설기초소재 기업 중 유일하게 친환경 사업 전담조직도 운영하고 있다. 에스피네이처 환경자원부문의 경우 버려진 고철·폐자동차·폐가전제품 등을 활용, 철근의 주재료인 철스크랩을 가공하고 있다. 친환경 소각장과 폐수 슬러지(하수 처리 시

생기는 침전물) 건조시설 등도 운영 중이다.

삼표그룹은 전사적으로 벌이고 있는 이같은 자원재활용 등 친환경 사업이 점차 심각해지는 국내 폐기물 처리 해결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삼표그룹 관계자는 “날로 심각해지는 폐기물 처리 문제는 국가와 기업이 함께 고민하고 해법을 찾아야 할 시급한 과제”라며 “버려질 산업 폐기물과 생활 폐기물을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것만으로도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시몬스, 장인정신 담은 ‘뷰티레스트 1870’

창립 150주년 기념 매트리스 출시

시몬스는 브랜드 창립 150주년을 기념해 독보적인 기술력과 장인정신을 담은 ‘뷰티레스트 1870(사진)’ 매트리스를 출시했다고 11일 밝혔다.

한국 시몬스의 독보적인 매트리스 설계 노하우와 장인정신을 집약한 ‘뷰티레스트 1870’ 매트리스는 올해 시몬스 브랜드 창립 150주년을 기념해 1870개



재해석한 레트로 풍의 줄무늬 디자인은 침실의 클래식한 분위기를 더한다.

‘뷰티레스트 1870’은 뷰티레스트 컬렉션 ‘뷰티레스트 블랙’에만 사용되는 삼중 나선 구조의 ‘어드밴스드-포켓 스프링’을 통해 한층 탁월한 지지력을 구현한다. 1900년대 시몬스 매트리스를

휴롬은 현존하는 원액기 중 가장 넓은 투입구와 새로운 커팅날개를 적용한 자동 절삭 기술로 더 편리해진 원액기 신제품 ‘휴롬이지(사진)’를 출시한다고 11일 밝혔다.

휴롬 원액기는 휴롬 창업주인 김영기 회장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저속 칡즙 기술력으로 스크루가 채소나 과일을 지그시 놀려 짜 효소와 비타민, 파이토케미컬 등 열에 약한 영양소를 보존하고 첨가물 없이 자연의 맛과 색, 영양을 그대로 살린 건강주스를 즐길 수 있는 제품이다.

이같은 원천 기술은 유지하되 모든 것이 확 달라진 휴롬이지는 현존하는 원액기 중 가장 넓은 136mm의 투입구와 2L 용량을 자랑하는 메가 호퍼를 탑재해 사과, 배, 당근 등을 소분할 필요 없이 통째로 채소, 과일을 가득 넣어 칡즙할 수 있다. 기존 45mm의 투입구와 600ml 용량에서 3배 이상 크기가 커졌다. 메가 호퍼 하단에 커팅날개를 적용해 통째로 넣은 재료를 자동으로 잘라주는 자동 절삭 기술로 재료를 손질하는 수고로움도 크게 줄였다. /김승호 기자



없이 통째로 채소, 과일을 가득 넣어 칡즙할 수 있다. 기존 45mm의 투입구와 600ml 용량에서 3배 이상 크기가 커졌다.

메가 호퍼 하단에 커팅날개를 적용해 통째로 넣은 재료를 자동으로 잘라주는 자동 절삭 기술로 재료를 손질하는 수고로움도 크게 줄였다. /김승호 기자